

8 세기 다자이후의 디오라마

이 입체 모형은 작은 규모에도 번영을 이루었던 다자이후의 도시가 8 세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묘사합니다. 다자이후는 천황 아래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중요한 관공서였으며, 도시는 매우 중요한 정치 행정 및 외교, 교역의 중심지이자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자이후는 정치에만 관련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종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입체 모형의 오른쪽 끝에는 당시 규슈의 주요 불교 사원이자 거대한 복합 시설이었던 간제온지 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내에는 과거 위용을 자랑하던 오층탑이 세워져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다른 수많은 건물과 함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재건된 일부 건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간제온지 사원과 인접했던 학교에서는 규슈 북부에서 모여든 남성들을 교육했으며, 학생들은 이후 규슈에 머물면서 고관이 되었습니다.

다자이후 정청은 시오지야마 산 기슭에 위치하며 산으로 이루어진 자연 방어와 방어용 벽과 해자로 조성된 미즈키를 통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다자이후 정청은 주홍빛으로 칠한 건물들로 구성된 궁전 시설이었으며, 당시 도읍이었던 헤이조쿄(지금의 나라현에 위치)에 있었던 궁정과 궁전을 모델로 삼아 지어졌습니다. 이 입체 모형을 통해 8 세기 다자이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발굴 조사는 고대 도시의 규모와 역사를 추가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